

# 합성수지제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김효정<sup>1)</sup> · 김명신<sup>\*2)</sup> · 김미라<sup>3)</sup>

<sup>1)</sup>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sup>2)</sup>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sup>3)</sup>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Consumer's awareness about labeling of food equipments with plastics and glass

Hyochung Kim<sup>1)</sup> · Myungshin Kim<sup>\*2)</sup> · Meera Kim<sup>3)</sup>

<sup>1)</sup>School of Human Counseling & Welfare, Inje University

<sup>2)</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Food Science &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최근 식품용 기구와 관련된 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일부 식품용 기구 원료의 위해성이 밝혀지면서 식품용 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의 경우 이들 식품용 기구에 대한 사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이나 재질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식품용 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식품용 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표시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식품용 기구의 재질별 표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성수지제 및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 거주하는 주부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스스로 기입토록 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2009년 2월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2.2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는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각 문항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 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분석,  $\chi^2$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령은 4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53.2%), 대재 이상(32.9%), 중졸 이하(13.9%) 순이었다. 월가계소득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34.9%로 가장 많았다.

### 3.2 식품용 기구 구매시 표시사항 확인정도

식품용 기구 구매시 품질표시, 보상관련 표시,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를 어느 정도 확인하는지를 5점으로 측정된 결과,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의 평균값이 3.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품질 표시'(3.137점), '보상관련 표시'(2.885점)이었다. 즉, 소비자들은 식품용 기구를 구매할 때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표시사항을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식품용 기구의 라벨 처리 방법

조사대상자들이 식품용 기구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69.9%가 '한 번 읽어본 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6%는 '읽지 않고 바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5.0%가 '필요한 제품에 한해 선택적으로 보관'한다고 응답하였고, 1.4%는 '모든 라벨을 읽고 보관', 1.2%는 '읽지는 않으나 그대로 보

관'한다고 응답하였다. 라벨을 보관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사용 시 주의사항'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상관련 표시' 때문(34.2%), '품질 표시사항' 때문(5.3%) 순이었다. 한편 라벨을 제거한다고 응답한 경우 라벨을 제거한 이유를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48.0%가 '불필요하므로', 37.9%가 '제품사용에 불편을 가져와서', 그리고 14.1%가 '라벨이 제품의 외관을 손상시켜서'로 나타났다.

### 3.4 식품용 기구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의 실천정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대로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3.594점으로 주의사항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정도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중졸 이하, 고졸에 비해 대재 이상인 경우, 그리고 월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에 비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표시된 주의사항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5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있는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사용설명의 이해도'(3.236점), '부착위치'(3.032점), '라벨제공방법'(2.939점), '외래어 표기 이해도'(2.750점) '글자크기'(2.675점) 순으로 나타났다.

### 3.6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 대한 필요정도

식품용 기구의 라벨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사용온도, 원산지, 제조업소 및 연락처, 판매원 및 연락처, 규격, 제조년월일, 품질보증기간, 교환·환불여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상담실, 사용 시 주의사항 각각에 대해 필요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필요정도가 가장 높았고(4.448점), 그 다음으로는 '교환·환불여부'(4.368점), '소비자피해보상규정'(4.228점), '품질보증기간'(4.220점), '사용온도'(4.212점) 순이었다.

### 3.7 현행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현행 식품용 기구의 라벨 표시사항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글자 크기를 더 크게'(27.5%)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24.5%), '품질표시를 좀 더 자세하게'(24.2%) 순으로 나타났다.

### 3.8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표시사항 방법의 선호도

응답자들은 플라스틱 보관용기류 및 유리 보관용기류를 제외한 식품용 기구에 대해서는 '제품에 연결된 태그'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 보관용기류 및 유리 보관용기류는 '제품의 속지나 띠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 3.9 식품용 기구의 품목별 라벨 표시내용 요구도

라벨에서 어떤 주의사항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한 결과, 플라스틱 바구니류, 플라스틱 물통류, 플라스틱 컵류, 플라스틱 양념통류, 플라스틱 보관용기류의 경우에는 '화기접근주의', '전자레인지 사용여부 및 주의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플라스틱 도마의 경우에는 '화기접근주의', '사용 전 세척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프라이팬류의 경우에는 '사용 전 세척사항', '술 또는 연마분 사용금지'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유리제 식품용 기구의 경우 '전자레인지 사용여부 및 주의사항'과 '충격주의'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 4. 결론

본 연구 결과, 소비자들이 식품용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벨의 표시사항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벨의 표시사항 개선을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표시사항 방법 및 표시내용 요구도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기법 (2002) 소비자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식품표시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합성수지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